

버티는 김종인 ... 벼랑끝 더민주

비례 2→14번 공천 비대위 조정안 거부 ... 사퇴 가능성
DJ 폼하성 발언까지 ... 국민의당 “명예 훼손” 강력반발

Ⓢ ‘선택 4·13’ 총선 D-22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셀프 비례대표 공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김 대표는 전날 더민주 중앙위원회가 비례대표 순번 결정을 미룬데 대해 당무 거부에 나선데 이어 그의 비례대표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늦춘 비대위 조정안까지 거부하면서 대표직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김 대표 행보에 당 내에서는 “성남 민심과 당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김 대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과거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은 것에 대해 폼하성 발언까지 하면서 호남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21일 당무를 거부하고 개인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셀프공천’ 논란으로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람을 그 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 가서 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당을 조금이라도 추슬러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가 의원직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며 자신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내 범 진노 진영의 반발 등과 관련, “나를 무슨 욕심 많은 노인네처럼 만들었는데 그건 핑계다. 말을 하려면 정직하게 하라”며 “자기를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것 아니냐”고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DJ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국회의 원이라도 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비례대

표 앞 순번을 못 받고 12번 받았으니 여러분이 안 찍어주면 국회에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종인 대표의 발언은 고인(DJ)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더민주의 역사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DJ의 비례대표 후순위 헌신은 김 대표의 ‘셀프공천’에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가 당무 거부로 실력 행사에 나서자 범진노 진영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중진들도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당헌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김 대표를 비토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비대위는 김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을 2번에서 14번으로 조정하고 박종현 전 공군참모총장을 비례대표 후보에서 제외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조정안에 대해 김 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등 더민주 비대위원들은 이날 김 대표를 만나 중재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오후 3시 열린 예정이었던 중앙위원회는 오후 5시와 밤 8시로 거듭 연기됐다.
김 대표가 더민주를 떠나게 된다면 전체 총선 판도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3 총선 투표합시다” 4·13 총선 D-23일인 21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교정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총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동남갑 장병완 공천 확정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단수공천 ... 김종현 당 선관위원장 사퇴

국민의당은 21일 4·13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 애초 광주 서구갑 후보로 발표했던 정용화 전 광주유니버시티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신 송기석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교체해 공천하기로 했다. 또 광주 동남갑에서는 장병완 의원이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영암·무안·신

안에서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단수 공천됐다. 이와 함께 안산단원에서는 더민주를 탈당한 부좌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하중 후보가 경선 참여를 거부한 광주 북을에서는 최경환 후보의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천 심의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하지만, 서정성(광주 동남갑) 후보 등 상대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공천이나 경선을 통제하는 당 시스템의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김종현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광주지역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천 헌신에 대해 무한 책

임을 느낀다”면서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지역 경선에서 속의 배심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로 후보 선택권을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미숙과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헌신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후보자들과 배심원단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민 분들께 불필요한 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6 광주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

인간이 도달할 ‘상상의 세계’

2016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주제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THE EIGHTH CLIMATE(WHAT DOES ART DO?))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17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1일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 기본구성안 등을 발표했다. ‘제8기후대’는 고대 그리스 지리학자들이 찾아낸 지구상 7개 물리적 기후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상상

의 세계’라고도 하며, 인간이 상상 능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제8기후대는 상상력을 끌어내 예술을 무대의 중앙에 놓고 본연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비엔날레는 9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암소녀 김세영 ‘LPGA 전설’이 되다

파운더스컵 27언더파 우승

‘영암출신’의 김세영(23·미래에셋)이 72홀 최다 언더파 타이 기록으로 LPGA 투어 2016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20면>
지난해 LPGA투어 신인왕에 빛나는 김세영이 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프라이어 골프클럽(파72·6538야드)에서 끝난 JTBC 파운더스컵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8개를 쓸어담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마지막날 10언더파 62타를 적어낸 김세영은 합계 27언더파 261타로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19·합계 22언더파 266타)를 멀찌

감치 따돌렸다.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김세영은 72홀 최다 언더파 타이 기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세영이 작성한 27언더파는 2001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핑 대회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웠던 기록과 같다.
단독 선두 지은희(30·한화)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4라운드에 돌입한 김세영은 전반에만 버디 5개를 낚는 버디쇼를 펼쳤다. 11번홀(파5)에서는 이글까지 잡으며 절정의 샷을 과시했다. 김세영은 18번홀(파4)을 파로 마무리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공천 확정 광주·전남 선거구 ▶4·5면
- U대회 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 ▶6면
-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 벨리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영부권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00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00 Avantgarde 1,991cc, 1,9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C 25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l (도시연비: 13.7km/l, 고속도로연비: 18.4km/l),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